

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- 배인호 초격차(超格差) 국어 제공

58/200

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

2018학년도 수능

[20~22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

선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
㉠ 앞내강 쨍쨍 얼어 조이던 밤에
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소

㉡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
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

못 잇을 계집에 집조차 없다기에
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
㉢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조.

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
㉣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* 오는 밤

㉤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
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멘가
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소.
- 이육사, 「강 건너간 노래」 -

* 조상: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위문함.

(나)

한 줄의 시(詩)는커녕
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
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
많은 돈을 벌었고
높은 자리에 올라
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
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
그를 기리는 묘비명(묘비명)을 여기에 썼다
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
불의 뜨거움 곳곳이 건디며
이 묘비는 살아 남아
귀중한 사료(史料)가 될 것이니
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
시인(詩人)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
- 김광규, 「묘비명(墓碑銘)」 -

(다)

시(詩)는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. 시에서 반영은 현실과 인생을 모방한다는 의미에서 외부 현실을 시 속에 담아내는 것으로, 역사와 현실의 상황을 시를 통해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. 여기서 반영은 '있는 그대로의 현실' [A]로서의 반영과 '있어야 하는 현실'로서의 반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. 전자는 역사와 현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일상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하고, 후자는 일상적

현실을 넘어 화자가 지향하는 당위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.
한편 '시에 대한 시 쓰기'라는 형식을 통해 시 그 자체를 반영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. 이때 반영의 대상은 외부 현실이 아니라 시 쓰기 상황이나 시를 쓰는 시인이 된다. 이 경우 시는 그 자체로 시론 혹은 시인론의 성격을 지닌다. 이러한 성격의 작품에서 시는 노래나 기타 여러 갈래의 글로 표상되기도 한다. 이처럼 시인들은 시 속에 형상화된 세계를 통해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한다. 이를 통해 시는 무엇을 말해야 하고, 시인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.

20. (가)와 (나)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.
- ② 유사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.
- ③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.
- ④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.
- ⑤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.

21. [A]의 관점에서 ㉠~㉤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㉠: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,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.
- ② ㉡: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상하여,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.
- ③ ㉢: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, 화자에게 닥친 일상적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임을 노래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다.
- ④ ㉣: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, 일상적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.
- ⑤ ㉤: 밤과 무지개의 이미지를 대응시켜,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.

22. (다)를 참고하여, (가)의 [노래]와 (나)의 [묘비명]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- ① ‘노래’가 시를 표상한다면, 이 ‘노래’는 (가)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.
- ② ‘노래’가 시를 표상한다면, 이 ‘노래’는 시가 ‘집조차 없’는 처지에 있는 이의 삶에 다가서야 한다는, (가)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겠군.
- ③ ‘묘비명’이 시를 표상한다면, 이 ‘묘비명’은 (나)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반영하고 있겠군.
- ④ ‘묘비명’이 시를 표상한다면, 이 ‘묘비명’은 (나)를 쓴 시인이 시 쓰기를 통해 ‘무엇을 기록’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계기라 할 수 있겠군.
- ⑤ ‘묘비명’이 시를 표상한다면, 이 ‘묘비명’은 한 줄의 시조차 읽지 않아도 ‘행복하게 살’ 수 있다는, (나)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는 소재라 할 수 있겠군.